

2. 마지막 일들 - 9.

적그리스도 (ANTICHRIST)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요이 1:7)

* * *

1.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서 보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반면, 사탄의 본색을 땅에 드러내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리를 선포하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사탄의 가장 두드러진 본성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8:44)이다. 이러한 사탄이 자기 일꾼들, 즉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거짓 사역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려고 미혹의 도구로 쓰는 것이 “큰 표적과 기사”(마 24:24)이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면 사탄의 일꾼들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그런 현상들로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겠는가!

살후 2:9-10 _____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거짓 사역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에서 떠나 감각적인 경험에 매이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존 윌버와 피터 와그너가 일으킨 ‘신사도 운동’에서는 힌두교의 수련에서 중시되는 ‘쿤달리니 각성’(Kundalini awakening)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힌두교인들은 쿤달리니 에너지를 다른 말로 ‘뱀의 능력’이라고도 부른다. 힌두교에서 코브라가 신성시되고, 힌두교의 영성 수련인 요가에서 코브라 모양의 자세가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 쿤달리니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샤키’라고 부르는 불의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되어 척추를 따라 머리 쪽으로 이동된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체험이 다양하지만, 활성화된 쿤달리니 에너지가 머리에 도달할 때에 극도의 황홀감, 무아지경, 방언,

동물소리, 낄낄거림, 몽롱함 ...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¹ 신사도 운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안수기도할 때 기름부음이 임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신사도 운동이 여러 모양으로 변형되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특히 교회 목회자들이 영적 능력을 얻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여기저기 개설된 신사도 운동 계열 세미나에 참석하여 그들의 방식을 전수받고 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미혹에 현혹되어 기이한 현상들이 자기 몸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영적 세계의 실재를 알게 되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체험한 것은 사탄의 영적 세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는 근접도 못한 것이다.

Q.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미혹을 당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궁극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는가?

요이 1:7; 막 3:29-30 _____

* * *

2. 마지막 때 나타날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과거 역사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자세히 예언한 선지자가 다니엘이다(단 7-12 장). 다니엘은 환상 중에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사용한 용어는 ‘작은 뿔’과 ‘짐승’과 ‘왕’이다. 세 용어가 모두 같은 인물을 가리키며, 그 인물의 출현에는 ‘인간 나라의 건설’이 동반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모방하는 것이다.

다니엘이 처음 꾸는 꿈에는 큰 바다가 등장한다. 큰 바다는 열국의 역사, 즉 사람의 총체적인 역사를 상징한다. 하늘의 네 바람이 그 바다에 불어 소용돌이치게 한다. 이 바람은 인간 역사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힘이요, 주권이다. 하나님이 뒤흔드신 인간 역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서로 충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 곧 각 시대마다 열국을 지배한 나라들이 나온다(참조, 사 17:12-13).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그들이다. 그중 마지막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열 명의 왕을 상징하는 열 뿔이 있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으며, 입으로 큰 말을 한다. 이 특성들은 이 나라의 다스림이 길고, 관찰과 지력의 힘이 있으며, 계시를 대적하는 이성의 표현이 있음을 상징한다.

¹ 정이철, (2014년 10월 12일). 피터 와그너의 쿤달리니 체험: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운동(3). *바른믿음*. 출처 <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nxo=127>

이 나라가 말세에 성도들과 싸울 나라이다(계 13:1-10). 지금은 ‘로마’라는 제국의 이름이 없어졌지만 그 짐승의 영이 남아서 끝 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부딪치는 세력이 되는 것이다(단 7:1-8).

이러한 인간 나라들과는 달리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좌가 있고,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여 계신다. 평온의 힘과 심판의 권세가 그 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의 옷과 머리털이 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보좌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역동하심을 보여준다. 그 불은 하나님 앞에서 강처럼 흘러나온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 전역에 미쳐 그 나라를 질서 있게 하는 것이다(단 7:9-10).

반면 네 번째 짐승으로 묘사된 나라의 ‘한 왕’, 즉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 인간 나라는 스스로 강대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섬기는 모습을 낳는 성령과는 정반대이다.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는 서로 물고 먹는 짐승의 역사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은 성도들을 가장 큰 적으로 여긴다. 이 세상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증거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세력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 묶어 두신다. 세상 역사의 정확한 시간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뜻과 법을 세워 역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때 두 때 세 때로 진행해 가려 하지만, 역사는 갑작스럽게 한 때 두 때 반 때로 진행하고, 그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심판을 당한다. 역사의 피날레에는 ‘인자의 나라’가 임하고,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단 7:11-14, 23-27; 8:1-14).

단 7:23-28

이 예언은 역사에서 ‘한 왕’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 바로 안티오쿠스 4 세인데, 그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었을 때 그 중 한 왕이었다. 그는 물이 넘침 같이 여러 나라를 패망시키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가 그 땅을 유린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거룩한 백성들을 죽였다. 그는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은 힘, 곧 사탄의 힘으로 비상한 일을 행하며, 평화로운 때에 동시에 숙청을 자행했다. 그는 계속 세력을 뻗쳐 애굽을 비롯한 남방 대륙을 삼켰는데, 동북쪽에서 역사 무대에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무리가 일어나자 분노하여 나가서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했다(단 11:44). 그는 또한 장막 궁전을 지중해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고 위세를 떨쳤고, 자신을 신이라 하여 이름을 ‘데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빛나는 신 안티오쿠스)’로 내세웠다. 하지만 홀연히 멸망이 임하여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단 8:15-27; 11:40-45). 이 역사는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미리 맛보게 한 사건이다. 우리는 끝 날에 출현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벌일지와 세상 끝이 어떻게 찾아올지를 과거역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다(살후 2:1-12).

Q. 인간역사의 진행시간표가 ‘한 때 두 때 반 때’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면, 고난이 길어질 때 성도가 끝까지 견디는 것이 왜 가장 필수적인 삶의 모습인가?

마 24:9-14; 계 13:10

* * *

3.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기는 길은 진리를 깨닫고 간직하는 것이다.

끝이 다가올수록 사탄이 거짓에 거짓을 더하여 세상이 그의 손아귀에 점점 먹히는 모양을 가질 것이지만 궁극에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단 8:25) 깨질 것이다. 그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까지도 베풀 것이지만(계 13:13),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과 그 세력을 태워버리고 사탄은 영원한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것이다(계 20:9-10).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리를 우선에 두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이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코 더러운 표적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즉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함을 통해 사탄의 미혹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굳게 서는 것이다.

살후 2:13-17 _____

Q. 나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깨닫기 원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단 8:25-27; 9:20-23 _____

* *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는 주님께서 기록해주신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믿는 자들마저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사탄의 계획을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사탄의 꾀계와 악한 시대의 조류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믿는 백성을 미혹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저희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